

# 최민식 “위인 인간미가 더 감동...성역화 내 취향 아냐”



## 영화 ‘천문’ 서장영실 역 맡아

연배우 최민식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천문’은 조선의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만들고자 했던 세종(한석규 분)과 장영실(최민식 분)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최민식이 천재 과학자 장영실을, 한석규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을 각각 연기했다.

최민식은 장영실과 세종의 애뜻한 장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두 사람이 함께 가지 않나. 세종은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고 장영실이 조력자다. 그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생되는 여러가지 감정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을 하는 내내 ‘두 사람이 과연 잘 맞을 때만 있었을까’ 했다. 이들도 사람이지만, 천문의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다. 과학적 아이টে임을 갖고 격론을 벌였을 수도 있다. 그렇게 유추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작업실이 됐든, 임금의 처소가 됐든, 어디서든시간에 두 사람은 만나서 일에 대해 격의 없이 얘기를 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최민식은 ‘명량’에서도 이순신을 연기했었다. 그는 “칭송받는 위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업적을 폄하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그분들도 저러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위인을 성역화시키는 건 제 취향은 아니다. ‘명량’ 할 때 ‘난중일기’ 봤을 때 감동받았을 때 슈퍼파워에 대한 감동이 아니었다. 이순신 장군의 다른 면모가 인간적으로 다가왔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저렇게 극복했구나’ 하는 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천문’은 오는 26일 개봉한다.

배우 최민식이 ‘천문: 하늘에 묻는다’ 호평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영화 ‘명량’의 이순신에 이어 역사적인 인물 장영실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 밝혔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는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 (감독 허진호/이하 천문) 주

## ‘한밤’ 김건모 측, 성추문 질문에 “여론서 나쁜 사람 만들어”

“아직 고소장도 못봐”...기자회견 등 고려 중



김건모의 소속사 측은 ‘한밤’을 통해 최근 성폭행 혐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은 최근 성폭행 혐의로 논란이 휩싸인 김건모의 사건을 집중 조명하면서 소속사의 입장이 담긴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성폭행 혐의로 김건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13일 고소장을 제출한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 측은 이날 ‘한밤’ 제작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여론에서 너무 나쁜 사람을 만들어놔서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우리는 아

직 (A씨) 고소장도 (경찰이 안 줘서) 못 봤다”라며 “그쪽 고소인이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도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다. 악의적으로”라고 얘기했다.

또한 “(A씨가) 가명을 쓰고 나에도 속여서 고소장을 넣었다”라며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한지는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향후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가능성은 “고려 중인데 아직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는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

구소(이하 가세연)는 지난 6일 A씨가 2016년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사는 지난 9일 A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장을 제출했고, 취재진에 “고통의 시간을 지낸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김건모의 사실 인정과 솔직한 사과”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성폭행 의혹 제기과 더불어 “김건모로부터 맞아 안와골절을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B씨의 인터뷰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건모의 소속사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김건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는 취재진에 “저희가 아직 피해자 여성분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며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외증에 가세연은 17일 오후 김건모 범죄 3번째 피해자 전격 인터뷰 공개 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세번째 피해 주장 여성 C씨는 “김건모가 전자 건반 옆쪽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자신의 OO를 보여줬다”며 “김건모가 바지를 내리지는 않고 지퍼를 내리거나 단추를 따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 故 종현 2주기...SM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이니 종현(1990~2017, 본명 김종현)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팬들은 여전히 종현을 그리워하며 그를 추모했고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 역시 그의 2주기에 메시지를 남겼다.

SM 엔터테인먼트는 18일 SM타운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종현이 열창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후배 처리된 사진 속에는 종현이 무대 위에서 입을 흘리며 노래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생전 음악을 사랑했던 종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팬들 역시 종현을 향한 여전한 그리움을 내비치며 추모하고 있다.

고 종현은 지난해 12월 18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2008년 사이니로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하던 종현은 ‘누난 너무 예뻐’, ‘산소 같은 너’, ‘무시파’, ‘줄리엣’, ‘드림 걸’, ‘에브리바디’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2015년에는 솔로로 데뷔, ‘데자-부’와 ‘좋아’ 등을 발표하며 싱어송라이터로서 역량을 드러내며 한류의 중심에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다.



## 정가은, 전 남편 고소 “사기 멈추지 않고 지속적 돈 요구”

“아이 아파라 참고 또 참다가 결국 고소 진행”

방송인 정가은(41·본명 백라희) 측이 전 남편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을 알리며 심경을 밝혔다.

정가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픈 측은 18일 공식자료를 통해 “현재 정가은은 전 남편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A씨는 자동차 이용매대 등으로 타인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자였다”며 “전과 사실을 숨긴 채 (정가은과) 만남을 이어오다 결혼을 약속한

이후 전과에 대해 시인했고, 이마저도 거짓으로 고백해 정가은이 의심할 수 없게끔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정가은의 유명세를 이용해 정가은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고, 해당 통장계좌를 통해 마치 정가은이 돈을 지급받는 것처럼 제3자로부터 돈을 입금하게 했다”며 “지난 2015년 12월 경부터 2018년 5월 경까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총 66회에 걸쳐 함께 13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정가은에게 2016년 10월 경 체납 세금 납부 명목과, 2017년 6월 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이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도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정가은의 심경을 입장에 포함해 전달했다. 정가은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며 “남편 이전에 한 아이의 아파라서 참고 또 참다가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와 결국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뉴스

###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쥬만지:넥스트 레벨
2관	시동
3관	겨울왕국2, 나이스 아웃
4관	쥬만지:넥스트 레벨
5관	포드 V 페라리, 감쪽같은 그녀
6관	시동
7관	겨울왕국2
8관	겨울왕국2, 라스트 크리스마스, 블랙머니, 나를 찾아줘
9관	겨울왕국2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 CGV\* 광주하남점

1관	감쪽같은 그녀, 쥬만지:넥스트 레벨, 아내를 죽였다, 블랙머니
2관	겨울왕국2
3관	겨울왕국2, 포드V페라리, 아내를 죽였다
4관	쥬만지:넥스트 레벨
5관	겨울왕국2, 쥬만지:넥스트 레벨
6관	나이스 아웃, 라스트 크리스마스, 러브 엡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